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수빅에 위치한 대학 부설 어학원입니다. 크기는 멀티미디어관 정도 되며, 건물이 좀 노후되었다는 것 말고는 생활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첫 주를 제외한 나머지 3 주는 리조트?와 같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건물과 경치는 좋았지만, 와이파이가 되지 않았고 모든 수업을 룸 하나에서 진행했기에 소음이 많아 수업을 듣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p>
수업	<p>수업은 1:1 그리고 4~5명에서 같이 진행하는 그룹 클래스로 나뉩니다. 두 수업 모두 영어로만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끝에 가서는 그냥 막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과제는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원하는 만큼 줍니다.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고, 싫다고 하면 안 주고...</p>
필드트립	<p>산도 올라가고, 요트도 타보고, 바닷가 보이는 리조트에 가서 수영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준비물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좋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당연히 매우 덥습니다. 살 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한국 오면 금방 돌아와요.</p> <p>비가 갑자기 올 때가 많으니, 장우산 말고 단우산으로 가방에 하나 넣어 다니면 좋습니다.</p>
안전	<p>수빅은 총기제한이 있어 총소리 들리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후에 혼자 돌아다닐 정도로 안전하긴 해요.</p> <p>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p>
숙소	<p>숙소는 말했듯이 첫 주에는 멀티미디어관 비슷한 건물에서 지냈고, 이후 3 주 동안은 리조트 비슷한 곳에서 지냈습니다.</p> <p>이전 숙소는 많이 노후되었어요. 그래도 와이파이 잘 됐고 벌레는 없었습니다.</p> <p>리조트는 건물은 좋았으나 와이파이 안 되고 바퀴벌레가 종종 보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v) 외부식당 () 기타 ()</p> <p>아주머니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한국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p> <p>가끔 밖에서 먹곤 했는데, 음식 가격이 굉장히 싸서 좋았습니다.</p>
교통	<p>주로 택시와 도보를 이용했습니다. 리조트에 있을 때는 중심지와 멀지 않아서 종종 걸어다니기도 했어요.</p> <p>수빅이 그리 크지 않아서 이곳 저곳 걸어다니는 맛이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교통	44,000	택시
음식	88,000	음식
옷	484,000	아디다스 유니클로 H&M
기타	110,000	기념품 뭐 이런 것들
합계	726,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약은 어학원에도 있지만, 챙겨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션이나 샴푸 이런 건 가서 사는게 더 저렴해요. 굳이 한국에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여유가 된다면 1주일에 20만원 정도. 적어도 1주일에 13만원은 쓴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가면 이것 저것 사게 되어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대학 부설 어학원이라고 해서 대학 내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어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모두 열성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건물이나 인터넷은 기대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고도 사는데 약간 불편한 상황들이 종종 생길 것이지만, 그래도 모두 맞춰 주려고 하셔서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빨래도 해주시구요.

수업은 평일 5시면 끝납니다. 이후 어디를 놀러가든 점호시간 이전에만 돌아오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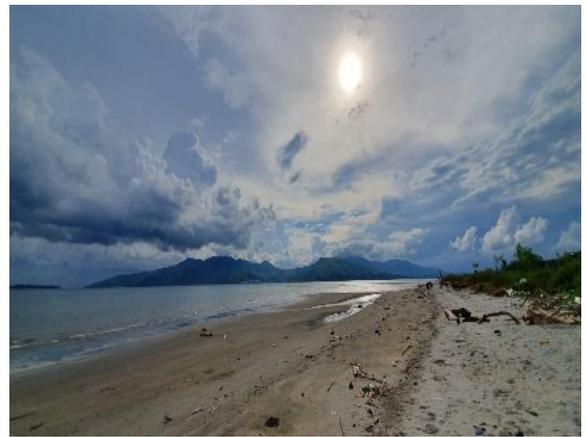
수빅은 경치나 구름이 매우 보기가 좋아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기에 글로벌 빌리지도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겨울에는 샹스타 칼리지도 한 번 지원해 볼 예정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빅베이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



수빅베이 바닷가



선생님과 찍은 사진



수빅 중심지 (하버 포인트)



액티비티 때 갔던 산



편 프라이데이